

주간 KDB리포트

Weekly KDB Report

이슈브리프

중국의 부실채권(NPL) 시장 현황
차량용 반도체 부족 원인 분석과 전망

국제금융시장

금융시장

금리 · 환율 · 주가



주간 KDB리포트 Contents

이슈브리프

중국의 부실채권(NPL) 시장 현황	1
차량용 반도체 부족 원인 분석과 전망	3

국제금융시장	6
--------------	---

금융시장

금리 · 환율 · 주가	10
--------------------	----

중국의 부실채권(NPL) 시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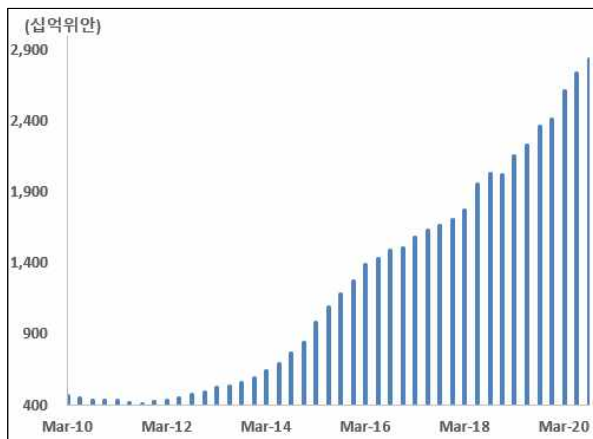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이원호 (popiou@kdb.co.kr)

- ◆ 중국의 부실채권(NPL) 시장규모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확대되어 왔으며 4대 AMC(Asset Management Company)의 시장점유율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외자의 진출 장벽도 점차 개선되고 있는 상황
- ◆ 외자기업중 최초로 중국내 100% 지분의 현지 AMC를 세우고 영업을 개시한 Oaktree AMC의 향후 성과와 후속 진출 검토 기관들의 움직임을 주의깊게 지켜볼 필요

□ 중국의 부실채권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4대 AMC가 전체 부실채권 처리시장의 90% 이상을 점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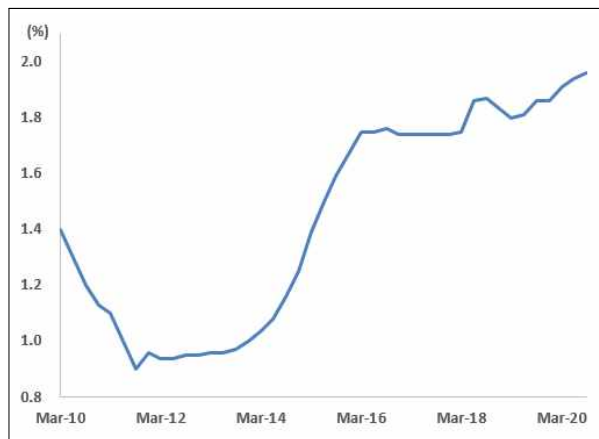
- 중국 상업은행의 NPL 규모는 '20.9월 기준 2.84조 위안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9.8% 증가, '10.9월의 0.44조 위안과 비교하면 약 6.5배 규모로 확대
- 상업은행의 NPL 비율도 '20.9월 1.96%로 전년 동기의 1.86%보다 0.1%p 상승, '10.9월의 0.9%보다 1%p 이상 상승

중국 상업은행 NPL 규모



자료 : CEIC

중국 상업은행 NPL 비율 추이



자료 : CEIC

- 중국의 AMC는 금융기관 등의 부실채권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회사로 전국성 AMC와 지방 AMC 등으로 구성
- 전국성 AMC는 재정부가 설립한 국유은행 부실채권 처리 전문회사로 4대 AMC(화융, 신달, 동방, 장성)라고도 칭함
- 지방 AMC는 지역내 부실자산 인수 및 처분을 위하여 성별로 세워진 AMC로 '20.6월 기준 약 56개가 영업중(이 중 38개 AMC는 성정부가 실제 지배주주)

- 4대 AMC의 시장 점유율이 90% 이상으로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2~3년내 점유율이 80%대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S&P Global Ratings)
 - 4대 AMC의 '19년말 기준 자산규모는 화용 1.7조 위안, 신달 1.5조 위안, 동방 1.1조 위안, 장성 0.6조 위안으로 지방 AMC(전체 자산합계 0.6조 위안) 등 타 AMC를 압도
 - 4대 AMC 모두 자본금이 300억 위안을 넘는 수준으로 대부분 100억 위안 미만인 지방 AMC와 자본금 규모면에서도 큰 차이

□ 중국정부가 금융시장 대외개방에 힘쓰는 상황에서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중국 AMC 시장에 진출중

- 중국정부는 '18년부터 금융시장 개방 로드맵 등의 금융개방 계획을 연이어 발표하며 외자의 중국 금융시장 진출을 장려중
 - AMC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외자 지배주주 불허정책이 폐지(기존에는 20%가 최대 보유가능 지분)되면서 외국계의 AMC 진입장벽이 허물어진 상황
- '20.2월 미국의 부실채권 투자 전문회사인 Oaktree capital은 542만 달러의 자본금을 투입, 외국 금융기관 최초로 중국에 100% 지분의 자회사를 설립
 - 동사는 '13년 중국 4대 AMC의 하나인 신달 AMC와 합자회사를 설립하고 중국 부실채권투자 시장에 진입
- 이밖에도 모건스탠리는 화용 AMC와('20.11월), KKR은 동방 AMC와('16.1월) 합자회사 설립 등을 통해 현지업무 참여
 - 외국인의 부실채권 거래는 '15년 5건에서 '19년 14건(11억 달러)으로 증가(PwC)

□ 중국 부실채권 시장에 진출한 글로벌 금융기관의 영업상황과 중국정부의 대외 개방 움직임 등에 따른 중국 부실채권 시장 변화를 주의깊게 지켜볼 필요

- 풍부한 투자경험과 우수한 자금조달 능력을 갖춘 외자계 AMC의 중국시장 진출로 중국 부실채권 시장에 유의미한 변화 기대(Dongxing Securities)
 - 현지 AMC와의 업무협력을 통해 중국시장 내에서 일정 수준의 경험을 이미 축적해 온 첫 외자진출기업(Oaktree)의 영업실적과 시장내 역할 등에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
- 중국정부도 지속적으로 금융시장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법제적 환경변화도 꾸준히 살펴보아야 할 요소
 - 미·중 무역갈등 등에 따른 금융시장 개방압박으로 외국자본의 중국진입 환경은 점진적 개선될 것으로 전망

차량용 반도체 부족 원인 분석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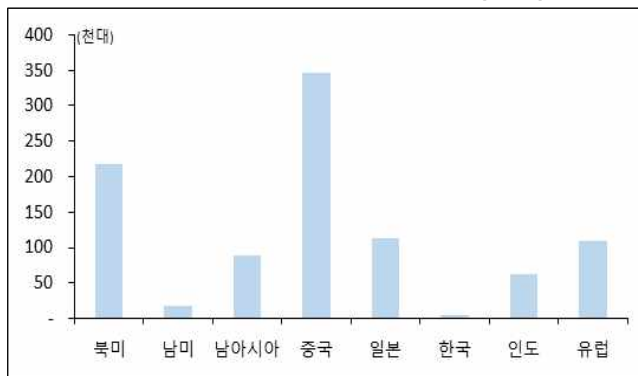
KDB미래전략연구소 산업기술리서치센터
 임영식 (imys1@kdb.co.kr)

- ◆ 차량에는 통상 200개 이상의 반도체가 탑재되며, 이중 금반 수급 불균형의 주된 원인이 된 반도체는 전체 공급의 70%를 TSMC社에서 외주 생산하는 MCU칩임
- ◆ 수요예측 실패, 천재지변, 파운드리 업계의 초과수요 등으로 발생한 차량용 반도체의 수급불균형은 '21.3분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 국내 차량용 반도체 재고 감안시, '21.2분기중 완성차 생산 차질 발생 우려

□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글로벌 생산손실은 '21.1분기 기준 96만대로 예상

- '20년 말부터 시작된 차량용 반도체 공급부족 현상으로 인해, 세계 85개 이상의 완성차 공장에서 생산 차질(중단, 감산)이 발생
 - (국내) 한국GM은 2월 8일부터 쉐보레 말리부와 트랙스를 생산하는 부평2공장 감산(50%)중

'21.1Q 글로벌 생산 손실 예상(대수)



자료 : IHS Markit('21.2)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감산 현황

기업	감산
테슬라	프리몬트 공장(모델3) 생산 2주 중단
VW	중국, 북미, 유럽 10만대 감산
GM	북미공장 3월중순까지 감산예정
포드	美공장 일시중단, 브라질공장 폐쇄
스텔란티스	이탈리아, 캐나다, 멕시코 공장 중단
도요타	中광치공장 생산중단, 미공장 감산
혼다	1Q감산량 30만대 추정

자료 : 언론 기사 정리

□ 차량용 반도체 부족은 생산 유연성 부족에 기인

- 일반적으로 차량 1대당 최소 200여 개 이상의 반도체가 탑재되며, 이중 금반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불균형의 주원인이 된 부품은 MCU*칩임
 - 파운드리를 통해 생산되는 반도체 부품은 AI chip, SoC, GPU, MCU 등이 있으며, MCU 공급사들의 웹-라이트(생산 외주화) 전략으로 인해 글로벌 MCU 생산량의 70%가 대만 TSMC社 파운드리에서 제조됨

차량용 반도체 분류

(단위 : mm, n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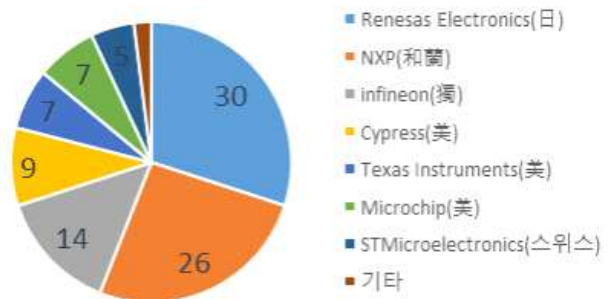
반도체 종류	적용 범위	생산공정		TSMC(파운드리) 영향도
		웨이퍼 크기(mm)	미세화 공정(nm)	
MCU	모든 전장	200, 300	16~40	매우 높음
AI chip, SoC, GPU	ADAS, 인포테인먼트	300	7.5~16	매우 높음
Memory	ADAS, 인포테인먼트	300	10~18	낮음
Image Sensors	카메라	200, 300	5~65	높음
Display Driver IC	인포테인먼트	200, 300	55~180	보통
RF Components	모든 전장	200	50~180	보통
Power Discrete	전동화	200	90~110	낮음
MEMS sensors	모든 전장	200	180	낮음

자료 : IHS Markit(2021), "Chip Supply Constraints"

* MCU(Micro Controller Unit)

- MCU는 프로그래밍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칩으로, 전자제품에 다수 사용됨
- 일반 MCU는 저전력, 저성능, 저가의 부품으로 인식되나, 차량용 MCU는 15년 이상의 수명과 내열, 내습, 내구성 등이 요구되어 부품 공급업체가 한정적
- MCU는 멀티 소싱이 어려움
 - 차량전장 Tier 1社は OEM社의 요구 기능에 따라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後 MCU에 탑재하고 타 부품들과 결합하여 모듈 형태로 납품

MCU 공급업체와 점유율



자료 : IHS Markit

- 글로벌 자동차 수요 감소가 장기화될 것이라 예상한 MCU 제조사들은 위탁 생산 발주량을 축소하였고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인하우스 생산 차질이 겹치며, 빠르게 회복되는 차량 반도체 수요와 공급간 불균형이 발생
 - 보통의 MCU 생산 리드 타임은 12~16주인 상황이나, TSMC社로의 주문 폭주로 인해 리드타임이 26~38주로 장기화
 - 지진, 화재에 의한 Renesas社의 생산 차질, 텍사스 한파로 인한 전력부족으로 NXP社, Infineon社 생산 차질 발생

□ 차량용 반도체 부족 상황은 3분기까지도 지속될 전망

- 각국 정부는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중
 - 미국, 독일, 일본 정부는 대만 정부에 자동차용 반도체 증산을 요청했으며 이에 따라, TSMC社는 차량용 반도체 생산에 우선순위를 할당기로 함
 - '21.2.24일 조바이든 美대통령은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소재 및 부품(반도체, 희토류 등) 공급망 행정명령에 서명함
- 차량용 반도체 부족은 생산 리드타임, 낮은 수익성*과 그로 인한 팹 배정 문제, 공정 미세화에 따른 MCU 공급업체들의 자체 생산 어려움 등으로 인해 빠른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
 - * MCU 생산용 웨이퍼는 8인치(200mm) 사이즈가 다수인 바, 생산성, 수익성이 낮은 편
 - TSMC社 4분기 매출 중 차량용 반도체의 비중은 3% 수준으로, 동사가 고부가가치의 주력 제품 대신 차량용 반도체에 신규 팹을 배정하기는 어려운 상황

□ 국내 차량용 반도체 재고 감안시, 2분기 중 자동차 생산 차질 발생이 우려

- 현대기아차의 차량용 반도체 재고는 2개월 수준*으로, 2분기 중 자동차 생산 차질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
 - * 차종별로 2주부터 2개월 사이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낙관적 시나리오) 3월 말 공급 최저점을 지나 4월 이후 공급이 개선되는 상황下, 보유재고의 적절한 배치로 생산 차질 없이 글로벌 반도체 부족 상황을 회피하고 반사이익 수혜 가능
 - (비관적 시나리오) 멀티 소싱이 불가능한 차량용 반도체의 특성상, 특정 부품의 공급 부족으로 국내 주요 OEM社의 생산 차질 발생, 추가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여 완성차 OEM社의 수익성 악화 우려

국제금융시장 2월 동향 및 3월 전망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김혜진 (ghjkim@kdb.co.kr)
 장명화 (clarajang@kdb.co.kr)

- ◆ **(환율)** 2월 미 재정정책 기대, 미 국채 금리 상승 등에 따른 달러화 강세의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였으며, 3월 미 국채 금리 움직임에 따른 외환시장 변동성 예상
- ◆ **(금리)** 2월 중 주요 국채 장기금리는 백신 보급, 재정부양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 속에 전월말 대비 상승하였으며, 3월 들어서도 금리 상승 압력 지속 예상
- ◆ **(주가)** 2월 선진국 증시는 대체로 호조세를 보였으나 월말 반락으로 전월말 대비 소폭 상승으로 마무리, 3월에도 위험자산 선호 경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시장 변곡에 대한 우려로 증시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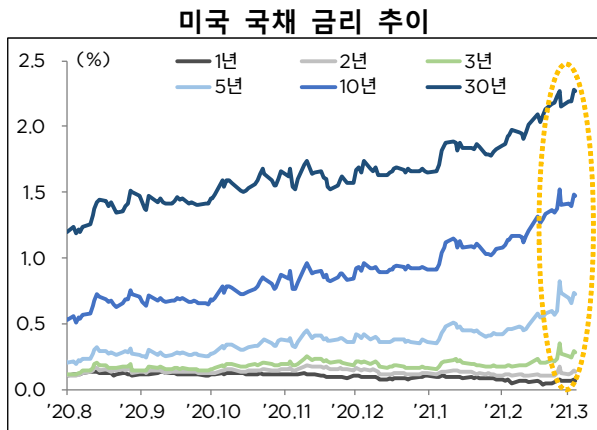
□ **(환율) 2월 중 달러화가 미 재정정책 기대, 미 국채 금리 상승 등으로 강세를 보였으며, 원/달러 환율도 이의 영향을 받으며 상승하였음. 3월에도 미 국채 금리의 움직임에 따라 달러화 및 원/달러 환율이 변동성을 보일 전망**

- (달러화) 달러 인덱스*는 2월 중 미 재정정책 기대 및 미 국채 금리 상승 등으로 상승하였으며, 3월에도 미 국채 금리의 영향을 받으며 변동성을 보일 전망
 - * 메이저 6개 통화(유로화, 엔화, 파운드화, 캐나다 달러, 스위스 프랑, 스웨덴 크로나) 대비 달러화 가치
 - (동향) 월초 미 재정정책 기대로 달러화 가치가 상승하였으나, 고용 부진 등으로 반락 이후 미 경기회복 기대 및 국채 금리* 급등으로 인하여 재차 반등
 - * 미 국채 10년 금리 추이(%): ('20.12월말) 0.91 → ('21.1월말) 1.07 → (2.12) 1.21 → (2.25) 1.52 → (2.26) 1.40
 - 월초 미국의 1.9조달러 규모 대규모 재정정책 기대로 상승 출발하였으나 소비 등 다른 지표 회복세 대비 부진한 고용지표 등으로 하락 반전
 - 이후 월말에 경기회복 및 인플레이션 기대 등으로 미 국채 금리가 급등하자 전월말(90.56pt)을 상회하는 수준(90.96pt)까지 반등
 - (전망) 강력한 재정정책*에 힘입은 미국의 경기회복 가속화 기대, 백신 보급 확대 등 상승압력이 우세한 가운데 3월 FOMC 등이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FOMC(3.16~17일) 이후 연준의 완화적 통화정책 의지에 따른 금리 급등세 진정 가능성 있음
 - * 민주당은 기존 실업급여 혜택이 만료되는 3.14일 이전에 1.9조달러 부양책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6일 상원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고 9일 하원에서 표결이 이루어질 예정. 또한 월가에서는 추가로 발표되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의 규모가 3조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
- (유로화) 달러/유로 환율은 2월 유럽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차질, 달러화 강세 등으로 하락하였으며, 3월에도 더딘 백신 접종 속도 등으로 상승이 제한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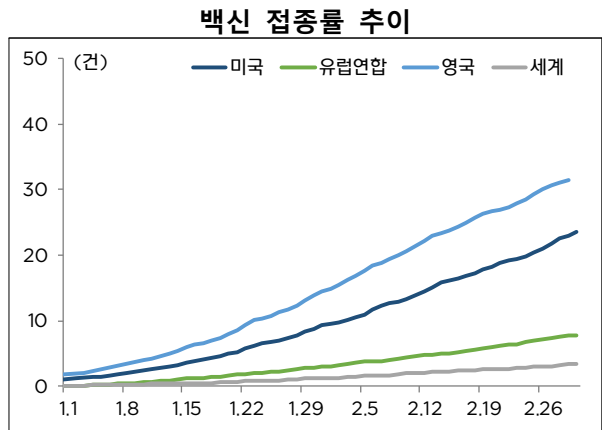
- (동향) 독일의 경기 심리 개선* 등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비 저조한 유로존의 백신 접종, 달러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하락

* 독일 기업들의 경기 신뢰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IFO 기업환경지수는 2월에 예상치(90.1)를 뛰어넘는 92.4를 기록(100 이상이면 긍정적, 100 이하이면 부정적이라고 해석)

- (전망) 백신 보급이 외환시장 내 주요 요인으로 부상한 가운데 미국 및 영국 대비 느린 유로존의 접종률 등은 달러/유로 환율 상승을 제약하는 요인



자료 : Bloomberg



주 : 인구 100명당 총 접종건수를 의미하며, 접종이 여러번 필요할 경우 접종인원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 ourworldindata.org

- (원화) 2월 중 원/달러 환율은 미 국채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1,120원대로 상승하였으며, 3월에도 미 국채 금리가 원/달러 환율의 방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

- (동향) 월초 미 국채 금리 상승, 달러화 강세 등으로 1,120원대 진입 후 수출 회복* 등의 영향으로 1,110원 부근으로 진정되었으나, 26일 미 국채 금리의 급등으로 전일 대비 15.7원 상승하여 1,123.5원으로 마감

* 2월 무역수지는 27억달러로 10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

- (전망) 3월에도 미 국채 금리 움직임에 영향을 받으며 등락하는 가운데 수출 회복 등이 추세적인 급등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환율 추이

	'19년말	'20년말	'21.1월말	'21.2월말	전월대비
달러 인덱스	96.479	89.927	90.560	90.960	+0.44%
엔/달러	108.66	103.26	104.75	106.60	+1.77%
달러/유로	1.1219	1.2217	1.2135	1.2065	△0.58%
원/달러	1,156.4	1,086.3	1,118.8	1,123.5	+0.42%

자료 : 연합인포맥스

□ (금리) 경기회복 기대 속 전월말 대비 상승, 향후에도 상승압력 지속 예상

- (동향) 미국 등 주요국의 장기금리는 대규모 재정·통화 부양책이 경기회복을 지원할 것이라는 기대에 따라 상승하였고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재확인하며 월말 소폭 반락하기도 했으나 전월말 대비로는 상승 마감
 - 미 바이든 행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 추진 및 인플레이션 우려 확대 등으로 장기금리 상승, 미 국채 10년물은 2.25일 1.5%대를 돌파하며 1년전 수준으로 회귀
 - 미 연준 파월의장은 시장의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 최근의 금리상승이 경제 회복 기대에 따른 것임을 시사하며 기존의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
 - 유럽과 일본 국채금리는 미 국채 움직임에 연동하여 상승하였으며, 코로나19 백신 보급 확대 및 확진자 확산세 둔화, 유럽 봉쇄조치 완화 계획 발표 등이 경기 촉진 기대요인으로 작용하여 상승세 지속
- (전망) 각국 경기부양책 진전 및 실물경기 개선 등으로 금리 상승압력 지속이 예상되나 인플레이션 경계, 코로나19 확산세 진정 여부 등이 그 진폭을 좌우할 전망
 - 3월은 미 행정부의 경기부양책 및 인프라 투자계획의 진행, 백신 접종 증가 등의 재료가 금리 상향 가능성을 자극하겠으나, 백신 접종률 제고로 기대되는 코로나19 관리효율 입증 여부, FOMC(16~17일) 및 ECB(11일)의 통화정책회의 내용 등에 따라 그 변동폭이 결정될 전망

주요국 국채금리 추이

	'19년말	'20년말	'21.1월말	'21.2월말	전월 대비
미 국채 10y	1.9175	0.9132	1.0655	1.4049	+33.94bp
독일채 10y	-0.1850	-0.5690	-0.5180	-0.2600	+25.80bp
일본채 10y	-0.0110	0.0210	0.0540	0.1620	+10.80bp

자료 : Bloomberg

□ (주가) 2월 중 각국 증시는 대체로 호조세를 보였으나 월말 반락으로 전월말 대비로는 소폭 상승으로 마무리, 3월에도 위험자산 선호경향은 지속될 전망이나 시장금리 추이의 변곡 여부에 촉각

- (동향) 주요국 증시는 백신 보급 확대 등에 따른 실물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전반적으로 호조, 월 후반 국채금리의 가파른 상승세와 연준의장 등의 통화 완화기조 유지 발언으로 혼조세를 보이다 전월말 대비 소폭 상승 마감
 - 장기간 과열 우려로 1월 중 조정국면을 보였던 미 증시는 일부 급등주의 밸류

에이션 조정과 이에 따른 시장의 긍정심리 회복으로 재차 상승, 주요 지수는 전월에 이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

* 월중 최고치 : 다우존스 31,961.86 (24일), 나스닥 14,095.47 (12일), S&P500 3,934.83 (12일)

- 물가상승에 따른 긴축시점 조기도래 우려 등으로 월중반 상승세가 주춤하였으나, 과일 연준의장의 시장안정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시장 정서가 복합되면서 월말까지 불안정한 등락을 연출
 - 유럽은 백신접종 경과에 따른 경제봉쇄 완화 및 유로존 경기저점 통과에 대한 기대감 확산 등으로 유로Stoxx50지수가 대체로 호조세를 보이며 전월말 대비 상승 마감
 - 대형 수출주 중심의 일본 Nikkei225지수는 동맹관계를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며 미국 증시와의 동조화가 강화된데 힘입어 30여년 만에 3만 선을 돌파하기도 하며 월말 28,966으로 마감
- (전망) 위험자산 선호 지속 전망되나 각 투자주체들의 차익실현 및 포트폴리오 재편 욕구 증대 예상
- 존슨앤존슨 백신의 긴급사용 승인 및 화이자 등의 백신 공급 증가, 유럽 경제 봉쇄정책 완화 예상 등에 따라 위험자산 선호 경향 유지될 전망이나, 증시 과열에 대한 경계심리 확대, 미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장세 불안 기조가 이어질 우려

주요국 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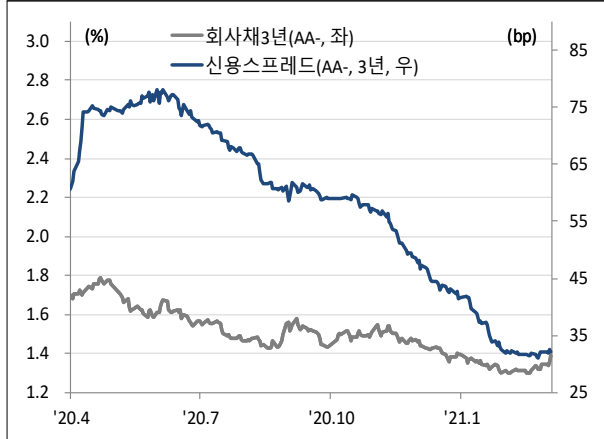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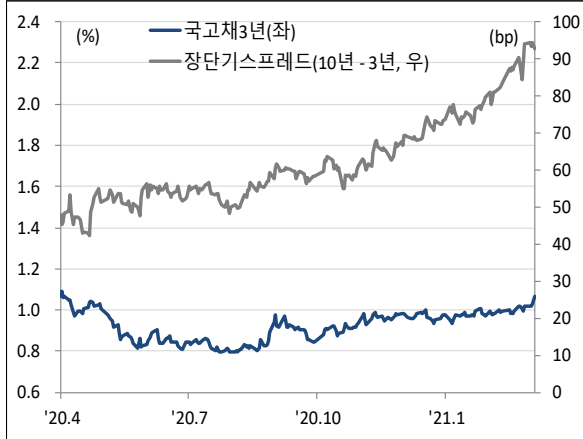
	'19년말	'20년말	'21.1월말	'21.2월말	전월대비
다우존스	28,538.44	30,606.48	29,982.62	30,932.37	+3.17%
유로 Stoxx 50	3,745.15	3,552.64	3,481.44	3,636.44	+4.45%
Nikkei 225	23,656.62	27,444.17	27,663.39	28,966.01	+4.71%

자료 : Bloomberg

(담당자 : 환율 - 김혜진, 금리·주가 - 장명화)

금리 · 환율 · 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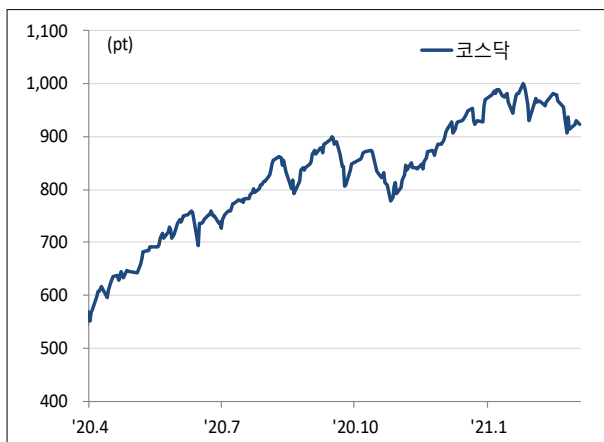
금 리 국고채3년 1.066% (4.6bp ↑), 신용스프레드 32.0bp (0.2bp ↓)



환 율 원/달러 1,126.1원 (2.6원 ↑), 엔/달러 108.35엔 (1.75엔 ↑)



주 가 코스피 3,026.26pt (0.44% ↑), 코스닥지수 923.48pt (1.04% ↑)



* ()는 전주대비 상승 ↑, 하락 ↓

주간 KDB리포트

Weekly KDB Report

제917호

주간 KDB리포트는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거나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rd.kdb.co.kr, kdb.co.kr
문의 787.7826

본 리포트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의견으로 당행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본 리포트의 저작권은 한국산업은행에 귀속되며, 원고의 무단전재, 복제, 배포 등 저작권 전반에 관한 침해 행위를 금합니다.